

문화재 보존·수리 수복에 대하여

金 植
(弘益大學校)

차 례

1. 문화재의 정의
2. 문화재의 수복
3. 문화재 보존 수리의 분류
4. 수리시공의 분류
5.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과학의 이용 문제
6. 문화재의 모사·모조에 대하여

문화재가 우리문화생활 속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는 매우 광범위해서 그 보존대책 역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이다. 생자필멸은 자연의 섭리이니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숙명이다. 만약 인간이 병들어 아프다면 이를 치료하고 고치려하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문화재 역시 파손이나 멸시되는 것을 막고 수리하는 전문분야가 보존 과학과 보존·수리수복의 분야이다. 우리 문화재를 보면 그 구조상 또는 재질상 무르고 약한 것이 많고 춘·하·추·동 4계절이 뚜렷하게 온도차가 심한 편이며 고온 다습한 여름의 환경은 문화재 보존상 호조건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옛부터 문화재의 보존수리에 대한 기본적인 수리방침이나 이념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험과 시대적 사고방식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리시공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수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실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문헌에는 어떠한 의도에서 수리되었는지는 거의 기록도 없으며 수리를 했다는 사실조차 경시 되어왔기 때문에 기록이 있는 경우도 修造·再興·修理의 문자가 눈에 띄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수리의 체계를 더듬어 찾아보기에는 답답한 심정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대적 가치관과 미의식을 전제로 한 문화재보존수리에 대한 이론적 기법적 체계를 모색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재 수리방침 및 수리의 사고는 한마디로 수리해야 할 문화재에 대한 인식여하에 달려있다. 다시말하면 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입장이나 종교적 예배 대상으로서의 입장, 예술작품으로 감상하는 입장, 또는 역사적 자료로서 연구하는 입장 등 각각 다른 입장에서 그 문화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리의 목적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요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수리의 기본방침은 學術的인 가치관에 의한 現狀維持修理가 그 원칙으로 되어있다. 문화재의 학술적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성에 대한 要素다. 오랜 세월 劣化 破損補修되어 왔던 문화재의 現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原初의 純粹한 形狀과 실태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일은 문화재의

학술적 연구에 중요한 情報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思考의 발전 위에 現狀維持의 수리방침이 확립되고 있다. 그리고 原初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리에 의한 보충을 거부하는 論理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학술적 연구에 장애되는 수리는 거부한다는 논리다. 보충수리는 될 수 있으면 실시하지 않는 것이 現狀維持修理의 기본방침이나 만약보충수리가 실시될 경우는 그부분이 명확하게 판명될 수 있도록 하는 수리법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술적 가치관에 의한 현상유지의 수리는 물론 우리의 전통적 재료기법의 기술축적 위에 자연과학, 역사 고고학 등의 人文知識을 밑바탕으로 보다 객관성을 강화한 문화재 보존수리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를 인식하고 수리할 때 이에 따른 문화재의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란 말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옛부터 사용하던 말은 아니었고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문화재 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 국보, 중요문화재가 새로 지정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말이다. 이에 앞서 근대에는 서구문물이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Civilization(문명) Culture(문화)라는 말이 사용되어 자연에 대립하는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유형, 무형의 것을 뜻하고 있다. 또한 종교, 예술, 학문 등의 제영역에 있어서 정신적인 고도의 창조활동, 제작기술의 발전과정과 그 성과를 포함한 의미의 문화개념이 일반화되었고 이 문화를 전제로 문화재라 하였으며 Cultural Property의 번역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문화재라는 말은 경제상의 재산관념을 문화적인 소산의 이름으로 전용하고 있었으나 재산이라고는 해도 경제적인 환가의 관념이외의 입장에서 실용과는 전혀 성격과 차원이 다른 정신적인 가치평가를 주는 것이 문화재이다. 이와같이 일반화된 문화재개념이지만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분야이고 종교·예술·역사 등의 인문과학 외에 재질(材質)과 기술에 대한 자연과학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 관계되어 있다. 광범위한 문화재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미술품을 중심으로한 미술사학이 있었지만 문화재학은 보다 학문 영역이 넓혀져 역사학·철학 등의 인문과학 뿐만 아니라, 고고학을 통한 자연과학의 응용범위까지 확대해서 문화재학으로서의 연구영역도 생기게 되었다. 예를들면 화산재에 의한 연대측정과 화분에 의한 옛날 환경의 복원도 가능하며 도자기 가마에 의한 고지자기(古地磁氣)의 해명 등 학제적 연구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사고방법이 정착되기 이전은 한마디로 「서화골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예술과 학술적인 것보다는 생활 속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제기행사, 민속습관에 관한 것이 대상물이었다. 이를 서구적 사고와 학술적 분류에 의해 역사, 예술 등의 학술적 가치를 유출하여 받아들였으며 그 기본적 사고로써 역사학, 미술사학을 바탕으로해서 현재의 문화재학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적 사고 이전의 문화재의 수리는 제각기 생활·종교·미술 등의 사용목적에 의한 수리였고, 현재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 위에서 수리가 실시되고 있다.

2. 문화재의 수복

문화재를 고치고 수리한다 수복한다 등의 여러가지 용어해석의 차이도 있지만, 파손되어 고친다는 것이 종래의 수리개념이다. 그래서 고친다 또는 현상태에 물리적 변화를 주어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 놓는 것을 말한다. 근년에는 부서졌다, 고친다의 개념외에 문화재본질의 열화(劣火)와 보존환경의 고학적인 기본문제도 부가하여「수리한다」외의 보존하는 개념도 넣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종래의 수리에 대해서는 그 원칙은 있었지만 수리의 실제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편리한 일이지만 그 원칙적인 구체성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수리된 문화재는 매우 다양성 복잡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단순성이나 통일성을 갖고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판단은 경험많은 숙련된 수리기술자에게 임의로 맡겨졌었다. 수리의 실제에 있어서 손실부분이 많을 경우 어디까지 손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의 수리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수리의 학술적 가치인식에 의한 수리목적의 정확한 판단에 달려있다.

3. 문화재 보존 수리의 분류

문화재의 보존수리는 그 가치인식에 의해 수리시공 방침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제작된 때부터 부여된 목적과 용도가 존재한다. 앞에서 말했지만 종래에는 목적에 의한 수리가 구체적인 수리시공법이였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수리는 전통적 수리법을 충분히 고려한 학술적 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1) 학술적 대상으로서 문화재 보존수리

문화재학은 전통적으로는 신앙대상과 보물을 주된 연구대상으로써 발전한 미술사가 중핵으로 되어 있어 미학, 철학, 역사학의 범주에 있지만, 재질과 기법은 자연과학에 있다. 그리고 그의 분석 연구는 화학, 물리학의 분야이다. 그래서 문화재의 보존환경에는 새로운 토목·지질학·광학·생물학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고 공개전시에는 행정과 교육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문화재학의 주위의 상황은 이와같이 다원적으로 복잡화된 환경이다. 학문체계의 연구대상으로써 볼 때 문화재의 학술적 가치에 있어서는 오리지날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존수리되어 온 문화재의 현상도 순수한 현상과 실태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때문에 후세에 속기쉬운 수리를 피해야 하고 원래의 모습을 존중하는 방법을 구축하여 오리지날은 그 문화재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사고의 발전위에 현상유지의 수리방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될 수 있으면 수리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을 채택하되 보수한 경우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판명될 수 있는 수리방법을 사용하여 학술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침이 채용되어야 한다.

(2) 종교적·심미안적 대상으로서의 문화재수리

종래의 수리는 종교적·심미안적 대상의 수리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역사적 유품에 있어서는 종교적 신앙 속에서 보호되어 온 것이 많다. 이들의 수리는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당연히 보완해서 예배의 목적에 맞추게 되는데 이는 복원적 수리를 목적으로 수리 시공이 실시되고 있어 불상의 경우 몇번이고 시대적으로 수리를 반복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심미안적 감상대상의 수리 역시 감상자의 입장에서 수리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缺損을 보완할 때 복원적 수리를 실시하게 될 경우 본래의 모습에 착오를 가져올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상실할 우려마저 크기 때문에 복원적 수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의 입장이며 문화재의 현상태의 본체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최대한 살리는 현상유지 수리가 실시되는 것이 요즈음의 문화재수리론이다.

(3) 복원적 문화재수리

복원적 수리라고 하는 말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이상을 복원이라고 하는지 그 범위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수리와 대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완전한 복원이라면 수리의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다. 수리되는 문화재의 손상된 부분이 많거나 전체의 모습이 불분명할때 손상된 부분을 보완해서 전체모습을 복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리부분이 오히려 오리지날 부분보다 양적으로 많을 때는 그 문화재의 인식부분보다 수리부분이 우세를 나타내게 되어 보존수리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재현수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보수부분이 많은 복원수리는 수리될 문화재를 현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고정개념으로 재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지날이 가진 무한의 정보원을 막아 버리게 된다. 이와같이 결실 부분이 많은 문화재의 수리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오리지날과 별도로 새로운 재료로 복원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복원작업은 문화재 보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 및 기법을 연구조사하게 되는데 이는 전통기법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원은 어디까지나 현대인의 해석위에 재현이라는 것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 문화재건축물에 실시하고 있는 단청의 문화재수리가 건축물의 보호란 입장에서 현상유지수리가 아니라 복원적 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단청의 오리지날성을 없애므로써 역사성의 상실은 물론 고건축의 미적 발란스가 깨져 조화미를 잃게되는 경우이다. 문화재 건축물을 보호한다는 현대적 해석의 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단청의 복원적 수리는 앞으로 학술적 현상유지수리를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수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의 건축물은 그 구조자체에 과학적 처리방법을 실시하는 별도의 문제로 취급해서 다루어져

야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문화재 보존과학이 노력해야 할 연구과제가 아닌가 한다.

4. 수리시공의 분류

문화재가치의 정확한 의식과약을 밑바탕으로 파손된 문화재는 현재 이상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수리의 시공을 하기에 앞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문화재 본체에 대한 엄밀한 조사이다. 조사법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조사 외에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기를 이용하는 수법 등이 있다. 조사후의 시공에는 직접 문화재 본체에 수리를 실시하는 직접적 시공과 문화재가 놓여 있는 보존환경의 적성화를 위해 수납상태, 전시환경 등 주위의 간접적 보존처리를 함으로써 문화재를 간접적으로 수리한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이를 문화재의 외부적 수리라고도 한다.

직접적 수리시공 즉 내부적 수리를 크게 나누면 현상보존수리와 복원수리 그리고 크리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현상보존수리의 직접적 수공법에서 문화재 수리에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공법은 경미한 파손을 수리하는 경우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만을 수리하고 본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 수리방법 등이다.

이 수리에서도 건조물·회화서적·조각·옥공예·금속공예·칠공예·염직물·칼·갑골 등 그 종류에 따라 전통적 수리방법의 허용도에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문화재로서의 학술적 대상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에서의 제약으로 각 부분에 적용되는 수리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회화 서적의 수리에 있어서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 장황(표구)의 수리가 이용되는데 繪畫나 글이 있는 본체는 매우 중요시되고 장황(표구)은 2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황 역시 선조들의 미적 사고에 대한 표현이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기에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 裝潢에 대한 현실이다. 장황에는 염직품이 사용되는데 이는 재질상 老化가 빠르고 소멸하기 쉬운 재료이다. 수리의 경우 대개 다른 염직물로 바꾸게 되는데 지금까지 명품의 염직물이 남아 있는 문화재의 회화는 본체의 보존을 위해서 혹은 장황의 열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본래의 表裝을 바꾸는 것은 금지해야 할 일이다. 시대와 인간의 好尙이 반영되어 있는 장황은 미적인 동시에 문화적·역사적 소산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화의 본체를 물리적으로 살펴보면 素地와 色彩, 色料를 굳혀 素地面에 접착시키는 아교로 되어 있다. 각각의 요소는 모두 내구성이 다르고 옛날부터 회화는 모두 물질적인 물질로서의 힘을 상실한 것과 아직도 활력이 남아 있는 것 등이 하나의 작품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의 것을 전통적 방법에 의해 수리가 실시될 때 주의깊게 생각해서 할 점은 기술적 부분과 관념적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기술적 부분은 일반 장황사에 의존해왔던 실정이다. 앞으로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적을 쌓으면서 세련도를 높이고 연구를 해야할 상황이다. 그리고

관념적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의식해서 수리에 임했으리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수리에 있어서 손상된 素地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識者로 부터 난폭 그 자체로 비난을 받지만 옛날에 수리를 몇번 경험해 왔던 회화는 거의 회화본체가 줄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간단한 사실은 수리기술의 미숙보다는 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식부족의 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화의 제작과 함께 시작된 수리의 역사 속에 아주 뒤떨어져 왔던 것은 이 관념적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 부분에 우리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수리에 관계하는 자의 고민과 위험성도 여기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리의 기본원칙은 현상유지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미술적 역사적 유산을 法에 의해 남기고 뒤에 전하도록 하는 행정목적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원칙은 존중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수리에 있어서 현상유지의 개념은 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본래의 부분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다. 본래의 부분을 없애거나 加筆이라고 하는 형태(행위)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화에 있어서 유형문화재가 양적으로 늘어난 일은 없다. 하나의 물질으로써 확실히 손상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양적으로 줄어든 곳에 손을 써서 본래 상태의 표현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였던 加筆의 수리방법은 문화재를 유지시키는 옛날의 방법으로 당연시되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인의 이와 같은 상식적 감각개념에 대응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유지 개념이며 이러한 상식적인 감각개념의 수리는 주관적 방향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회화는 수리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을 받게 되는데 회화본체의 유지에 있어서 뒤에 부담이 될만한 일은 신중히 고려하여 피하는 것이 修理의 倫理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리는 현상태를 변형시킨다고 하는 일이고 그 때문에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수리에는 하나의 커다란 고민이 있다. 그것은 수리는 「변형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난받기 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리에 있어서 수리자의 개성과 창작성을 문화재에 표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개성은 수리기술자의 필연적 특색이긴 하지만 그 개성은 수리과정에서만 존재하며 완성과 함께 소멸되는 무형의 것이어야 한다.

(2) 복원 수리에 관해서는 앞의 보존수리의 분류에서 논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크리닝과 정리도 수리시공에서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장황(표구)에서 회화의 때와 먼지를 제거할 경우 그리고 발굴품의 경우 진흙과 녹을 제거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실시할 것인가는 문화재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과학의 이용문제

문화재의 수리에 보존과학이나 여러가지 과학적 수리법 등이 이용되고 있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사회의 첨단과학과 고도의 정보시스템에 힘입어 문화재의 보존수리에도 종래의 전통기법에 의존하는 수리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문화재의 보존방식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오랜 역사의 산물인 문화재

에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전통적 수리법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에 따라 옛 전통기법이 새롭게 조명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응용되는 것은 전통기법을 첨단과학의 大系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발견이라 할 것이다. 일례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섞은 풀은 접착력은 떨어지지만 표장보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근대과학의 도움으로 해명되어 전통기법의 우수성을 새롭게 증명해주고 있다.

과학은 개개의 개별적 사실들을 daxe化하여 보편적 법칙을 유출해 내는 수단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에 의해 새롭게 개발되어진 수리기법과 그 재료가 많다. 그 중에서도 합성수지는 문화재수리에 있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회화의 수리에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로 1950년 경부터 20년간 용제타입의 아크릴수지와 P.V.A를 많이 사용한 예가 있다. 합성수지의 경우 시공이 간편하고 과학적으로 아교보다 접착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용되었지만 접착력의 강화를 위해 농도가 짙을 경우 색이 짙어지거나 광택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합성수지 사용의 시행착오에 대한 연구가 과학자와 수리자 사이에 계속되어 결국 합성수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합성수지가 안료의 발색에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회화의 구조자체를 바꾸게 된다는 결론이다. 합성수지와 아교는 分子구조 및 접착의 메카니즘이 다르다. 즉 아교의 입자를 点的으로 접착시키지만 합성수지는 안료의 입자를 감싸서 결합하기 때문에 합성수지의 경우 안료의 발색에 변화를 주기 쉽다는 이유와 회화의 구조상 안료와 素地 그리고 배접지 등의 접착제가 풀과 아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물에 의해 분해되어 해체되기 쉬운 상태로 되어있다. 그러나 합성수지는 물에 의해 분해되지않는 구조 때문에 회화 자체에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결국 다음 수리에 문제점을 준다는 점이다. 아무리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합성수지라도 수리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며 그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 기법으로는 불가능 하던 것을 신과학기술에 의해 보존수리가 가능하게 되어 문화재 손실을 막고 보존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유효성의 사실이 인식되어지기는 하지만 문화재에 직접 응용하는 경우 그 복잡성과 미지의 조건이 있어 실험적 데이터와는 많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연하자면 문화재 가치의 인식을 침해하는 과학적 수리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6. 문화재의 모사·모조에 대하여

복원수리는 오지지날과는 별도로 현대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충실하게 복제, 재현하는 현상 모사, 모조 등이 있다. 보존수리라고 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문화재 보존방법의 하나로 파손이나 변형되어 있는 상태의 문화재에서 최초의 상태를 추정하고 복원하는 복제수법을 말한다. 모조, 모사라고 하면 재현하는 기법연구를 포함하는 뉘앙스가 있지만 복제라는 말에는 오리지날의 제작 기법과 관계없이 재현된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요즘 각 지방에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생기면서

문화재나 미술품이 전시되어 그 지역문화의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나 우리 여건상 전시되어야 할 대상물이 한정되어있기때문에 기획전시를 희망하고 있어도 그 수요에 대하여 충분히 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적문제의 해결과 파손이나 손실의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해결방법으로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공개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복제문화재라고 한다. 이것은 문화재보존과 전통기법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모사, 모조의 기법은 현상모사와 복원모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상모사의 경우는 원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어 변화된 상태 그대로를 충실히 옮기는 작업으로 최초기법이라고 추정되는 기술과 재료로 창작된 시대의 기법을 연구해서 재현하는 것이 현상모사이다. 또한 완벽한 상태로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사를 통해 역사성의 분위기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간의 모사는 거의 현상모사를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복원모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원본의 원래상태를 알아 보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문화재의 보존수리는 역사적으로 종교유물의 수리, 미술품의 수리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전통기법에 의해 수리가 실시되어왔지만 문화재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학술적인 가치관에 의한 현상유지의 수리가 문화재 수리의 일반적 개념으로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정을 보면 아직도 문화재 수리에 대한 이론적 내지는 기법적 체계가 미확립된 상태에다. 보존수복 수리에대한 전문연구분야의 시설미비와 전문기술자의 부족 등 너무나 해결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무리한 문화재 수리의 진행은 결국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므로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제반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다음 수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